

고은 불교 대하소설

합두 불이의 애육

여기서 사바세계의 무욕도를 떠나 다른 중생계로 들어간 사람들을 떠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바세계의 한 지역인 조선의 산야에도 옛길보다 새 길이 더 생겨나고 그런 길따라 오고가는 사람들의 행색이 불어오는 불안한 시절인 만큼 다른 세상은 어떤가 하고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고대의 중국대륙 동쪽의 용문석굴과 서역의 돈황 막고굴의 어느 석굴 채색벽화 속의 천상인(天人)들은 서로 밀고 가까운 거리 따위를 초월해서 그 캄캄하기만 한 석굴 안에서 밤마다 그림 속으로부터 실재인물로 나와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라가서 장안과 낙양 사이의 삼문협(三門峽)의 한 상공(上空)에서 만나 서로 알맞은 수컷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다가 번둥이를 무렵이면 각각의 석굴 벽화 속의 그림으로 돌아간다는 전설은 진실 이상으로 그 애절한 사연이 생생한 것이었다.

천상계의 사랑을 이 땅 위의 사바세계에

음으로 오묘한 일이라는 찬미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욕도의 밤하늘이아 아무리 우러러보아도 그런 사랑의 현상을 육안으로 목격할 수 없으니 이미 살아있는 육신이 갖추고 있는 육경(六境)의 하나로서의 안근(眼根)의 대경(對境)인 색경(色境)이란 것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가. 그것이 본래 비었다는 공사상에 앞서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천상계나 사바세계의 기운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하늘 속의 일이 그런 바에는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중생들을 누가 집착할 수 있다고 장담한단 말인가.

한 귀퉁에 네 마리 뱀을 넣고 다닌다 (一貫四蛇)

네 마리 뱀이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를 말하건대 한 귀퉁이란 중생의 육신을 일컫는 것이다.



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어느 누구도 항상 굶주리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똑같다.

이런 아귀계를 다스리는 자는 중음(中陰-아승과 저승 사이의 미정착상태의 세계)도 다스리거나와 지옥계도 다스린다. 그러므로 아귀계의 현상은 아무래도 지하에 있지만 아귀로서의 업보를 받는 굶주림의 괴로움은 비단 그곳만이 아니라 인간계나 심지어는 천상계에까지도 산재하고 있는 것이 아귀계의 현상인 것이다.

1천2백30년전5백 유순의 까마득한 원반모양 위에 수미산을 비롯한 8천백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아래 8대도와 4대륙이

가장 소박하게 말하기로 한다면 육신을 부리거나 인색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하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세계가 곧 아귀계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먼 사막을 여행한 사람이면 안다. 아니 집안에 음식 한톨 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면 안다. 차라리 오랜 가뭄으로 썩은 커녕 우물도 다 말라버려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참담한 꼴만 아래의 사람이면 안다. 그 모든 아귀계의 괴로움.

천상계와 인간계 이외에도 지옥계에도 이런 아귀중생은 있다.

불이와 합두의 어디에 그런 아귀 업장이

그들은 사바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애육을 마치 이런 아귀계에서라도 이루어야 할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해골의 몸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들의 해골형상은 뜨거워서 찌직찌직 타기 시작하였다

허יות는 것이다. 그 원만 아래의 지옥계나 수미산 중턱부터의 아스라히 높은 천상계와는 또 다른 활기찬 중생계의 하나가 곧 천상계와 인간계까지도 진출한 아귀계의 광범위한 경우이다.

아귀계에는 불이와 합두와 같은 아귀업을 그들의 업장 깊숙히 지니고 있던 중생들이 받는 소재아귀(小聚阿鬼)가 있다. 문득 해골에 삼각이 달라붙는 것 같은 형상인데 그들은 씩은 고름이나 피를 먹으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재(無財)아귀와 같은 무서운 형벌의 아귀는 아니다. 무재아귀는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절대 공허의 아귀

형상으로 되고 만 것인가.

그 아 다니다가 어떤 육신의 일부가 씹어가는 동안 거기에서 터져 나온 누런 고름을 빨 수 있었다. 바로 그 고름을 빨기 위해서 다른 아귀를 튼서리를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서로가 해골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았던 것이다.

"누구세요! 이계."

라고 합두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페그치도 않고 타는 칼등도 한동안 있을 수 있었다. 아니 사바세계 풍경지대에서 밤급 소나기라도 쏟아지는 오랜 가뭄의 눈에서 죽어간 모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합두!"

"불이! 불이!"

그들은 아무런 존중도 구하지한 군더더기였다. 미구 알차안였다.

그들 곁에 다가온 아귀계를 감시하는 귀신조차도 형상국은 형상을 변화시키고 그가 들고 있는 동종이도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절절한 그리움으로 만난 두 아귀의 대면인데 귀신들 거기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합두! 나는 이 아귀업 벗어나지 않아도 관할이니 그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온갖 굶주림이나 목마름도 그대가 없는 것에 미치지 못하도록 복되겠어!"

"불이!"

그들은 사바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애육을 마치 이런 아귀계에서라도 이루어야 할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해골의 몸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들의 해골형상은 뜨거워서 찌직찌직 타기 시작하였다.



57

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청정한 사랑의 전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와 이러한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다.

전설이란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를 묻는 것은 이상이나 아니면 실로 어리석은 추구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네마리 뱀에 엉겨있는 육신으로서는 그 육신이 찾아내는 지혜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자못 고개를 돌려 허망할 따이다.

어쨌거나 무욕도에서 떠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우선 아름다운 이승 합두와 고려의 불우였던 천재시인 임

춘의 후신으로 태어난 불이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시인의 후신인 불이라면 그의 전신인 시인 임춘인양 떠돌다가 어느 객점에서 자친 다리를 쉬기라도 하고 있을 것인가.

몸을 먼저 광상에 누워 문득 이내 불이 있었나

한낱 배개 위 바람이나 잠이 절로 깬다 공속의 이내 물도 머물 곳이 없으므로 건곤이란 도시 이 한 장정(長亭)인 것을 (夢覺)의 攄(攄)인 형 (午花風來香自歸 夢覺北地無歸處 乾坤都一長亭)

이 칠언절구(七言絶句)는 《영이 더 있대 어 있거나 어느 세상에서 공속에서조차 머물 곳도 없이 떠도는 것이 불이의 명문(命文)인가? 아니 그런 불이를 인형극의 실을 잡아들기다가 놓추다가 하며 그 동작을 다스리듯 이 불이에게 영감을 주었던 합두는 어떤 신세이겠는가?

구려서 멀리 육도(六途)의 중생계를 내려다보는 신통력이 있어 마치 높이 높이 떠있는 솜씨가 저 지상의 어느 마을 외딴 집 마당의 중병 아리까지 갈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 눈으로 하여금 불이와 합두가 잘도 보일 터이다.

임춘의 시 '호릿한 두눈 먼 봉우리 보자 하니 (兩眼空疎看遠峰)의 그런 눈이 지상의 눈이라 하더라도 그 눈도 높은 경지인 것을 알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의 육안으로 자못 두 사람의 행방은 찾아내실 노릇이다.

과연 불이와 합두는 각각 헤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아수라세계에 들어가려

다가 아귀계로 들어가야 할 업장이 갑자기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내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정녕 굶주리는 고통으로부터 조금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애오라지 지식과 시정(詩情)에 상응하는 그 아름다운 용모의 여성은 능히 한 쌍의 화족(華族)을 이루는 난만한 밤이 될 수 있건만 그런 일과는 10만8천리나 떨어져 있는 굶주린 아귀로 목숨으로 달랑거리고 있는 극한의 자육(自肉)이다.

더구나 아귀계의 중생들의 일부가 그렇듯이 두사람은 거의 해골에 삼각죽이 붙어 붙은 처참한 꼴이었다.

아귀계는 천상계와 지옥계 사이에 끼어 있는 수미산 세계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중생계의 하나이다. 이 아귀계에는 불이와 합두와 같은 말라빠진 물골의 아귀만이 아니라 아귀계도 중생계인만큼 실로 다양

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쳐도 누가 먹다버린 찌꺼기조차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아귀가 부르는 노래만큼 슬픈 것은 없다. 흔히 사바세계 인간계에서의 자식 잃은 어머니나 사육사에서 쓰러진 지어비에 대한 아낙의 슬픔은 장(長)이 토막나듯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세계를 넘어서서 무재아귀의 그것은 차라리 일상적이다.

소재아귀 무재아귀에 이어 다대(多對)아귀도 있다.

이 다대아귀는 사바세계나 아귀계의 지배자가 남긴 불건이나 남겨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천상계의 부락(富樂)을 누리는 경우도 있지 않아서 그 다대아귀의 중생은 들뜰날룩한 것이다.

이밖의 아귀들까지 합치면 36종류나 된다.

그림·조향숙

절절한 그리움으로 만난 두 아귀의 대면에 귀신도 감복

그 전설을 믿거나 그 전설을 이어오느냐에 그 뜻이 좌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하는 맑은 긴 자류들을 합쳐서 더욱 폭이 넓어지고 흙탕물의 양도 넘쳐나려는 것이지만 저 동굴 괴사(괴사) 끝 천산(天山) 기린산맥(那連山脈) 이북에서 황하 본류와는 달리 우여곡절의 급이들을 감돌아 만리장성 서쪽을 남쪽의 황하 본류와 거의 평행하다가 갑자기 사막으로 복향하여 황하 본류의 본거지 포두(包頭)에서 장성을 넘어 장안 옆의 화산(華山)에 이르러 본류와 하나가 되는 지역이라 귀머거리에게도 그 물소리가 들릴 지경이라 한다.

바로 그 삼문협 산중 위의 북두칠성이 기울어버린 검푸르기만 한 하늘 속의 그 텅 빈 허공 가운데를 서로 멀리서 그리워하다가 만나는 사랑으로 채우는 천상인의 일이야말로 어떤 공평적에게는 성불(成佛) 다

이 칠언절구(七言絶句)는 《영이 더 있대 어 있거나 어느 세상에서 공속에서조차 머물 곳도 없이 떠도는 것이 불이의 명문(命文)인가? 아니 그런 불이를 인형극의 실을 잡아들기다가 놓추다가 하며 그 동작을 다스리듯 이 불이에게 영감을 주었던 합두는 어떤 신세이겠는가?

구려서 멀리 육도(六途)의 중생계를 내려다보는 신통력이 있어 마치 높이 높이 떠있는 솜씨가 저 지상의 어느 마을 외딴 집 마당의 중병 아리까지 갈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 눈으로 하여금 불이와 합두가 잘도 보일 터이다.

임춘의 시 '호릿한 두눈 먼 봉우리 보자 하니 (兩眼空疎看遠峰)의 그런 눈이 지상의 눈이라 하더라도 그 눈도 높은 경지인 것을 알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의 육안으로 자못 두 사람의 행방은 찾아내실 노릇이다.

과연 불이와 합두는 각각 헤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아수라세계에 들어가려

대중불교

12월호

부처님 말씀·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5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현대불교 편집국장 최정희 씨 / 김희균·14
쇠북소리·대통령과 무소유 / 김승철·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전채성 교수의 제안에 대하여 / 이광태·12
젊은 불자 발언대·불기 2500년 시업 구상하자 / 이병두·70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비자금 뒤에 올 환경피해 / 상낙진·73

● 송년특집
불기 2539년 불교계 10대 뉴스 / 편집부·37
방송·국지·복지·불사·교육·단체·운동·문화·사건·출판

● 기획 / 개혁종단 1년
여전히 나무꾼은 개혁의 깃발 / 유지호·62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 유승무·65

불교교리산책·선업과 불신업 / 정승석·19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마음관리 / 윤태·22

수행으로 가는 길·윤희의 바른 이해 / 이계열·26
신행살담·반드시 계를 받아야 합니다 / 상덕·61
선화일편·내 딸이 아주 재빠르구나 / 실산·30
법당 이야기·법당,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원준·74
에세이 보살불교·아픈이들의 법약, 약왕보살 / 이지·32

칼럼화보
얼과 문화 / 김효형·김성철·53
양양 진전사터와 선림원터 / 김희균·김성철·54

포교의 현장·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춘희·80
수행길의 이란 도반·허공을 닮은 허공 스님 / 표형·88
포교당 일기·무녀가 된 '귀여운 여인' / 권옥·91
한국 밖의 한국불교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 씨 / 장용철·48
만나고 싶었습니다·회암 40년 회고전 연 김보현 회백 / 이윤수·84
봉주수로 감상합니다·현권문 자물쇠 보수기 / 지

목·94
환생의 나라, 티벳·피에 젖는 신들의 땅 라싸 / 김신정·96
일본을 개혁한 위대한 한국인·한국불교 재건에 나선 '소아사자' / 홍윤기·100
말씀과 함께·무상은 기쁨과 희망 / 홍미경·104
독자기고·참선수행과 호흡수련에 관하여 / 김대진·106
책사저를 찾아서·원주 흥법사터 / 김성영·최태선·110
불교와 민속·핀소리 '심청'에 나타난 율회사상 / 김종대·116
건강·중년 남성과 심근경색 / 해탈·118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안희경 / 이숙자·119
문화/불기일화·이직의 시리와 견초사 / 윤승훈·122

●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이중표 교수의 '불교방송 교리강좌' 단행본으로 출간

발행처 도서출판 대원정사
전화번호 (02) 752-7047, 754-1614

